



제주 포구에서 즐기는 초여름 초여름 날씨를 보인 23일 제주도 한경면 판포리 포구를 찾은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 전면 등교수업 시동... “기대반 우려반”

### 도교육청, 학교 밀집도 완화 등 등교수업 인원 확대 과밀학급·급식실 밀집도 해소 대안 마련 과제로 대두

제주교육당국이 2학기 전면 등교수업을 목표로 등교수업 확대를 추진한다. 도내 각급 학교 학생들의 매일 등교수업을 향한 점진적 조치의 일환으로 학교 밀집도 기준 완화 등 등교수업 인원이 확대 조정될 예정이어서 학사운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안전한 2학기 전면 등교수업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꼽히는 과대학교·과밀학급과 급식실 밀집도 해소 대안 마련은 과제로 남아있다. 고3을 제외한 학생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아직 없다는 점도 학교 현장의 우려를 키운다.

제주도교육청은 23일 열린 대책본부회의에서 오는 28일 이후부터 2학기 개학 직전까지의 학사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 기간 현재 긴급돌봄 대상인 초등학교 3학년까지 매일 등교수업이 가능해진다. 현재 매일 등교수업 대상은 유치원과 초·1·2, 고3 학생이다.

이와함께 밀집도 기준도 완화돼 초 1000명 이상, 중·고등학교 800명 이상 학교만 2/3 밀집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초 900명 이상, 중·고 700명 이상 학교는 1/3(고2/3) 원칙 속 협의를

통해 2/3 조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개학 이후 등교·원격수업이 병행되고 있는 일부 과대학교의 전면 등교수업이 이뤄지는 등 등교수업 인원이 확대된다.

이와함께 도교육청은 2/3 밀집도가 계속 유지될 일부 대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2학기 전면 등교 준비기간을 운영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과밀학급과 급식실 밀집도 해소를 위해 문제점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현재 제주지역은 거리두기 2단계 추가 연장에 따라 이와 연동된 학사운영 방안이 오는 27일까지 적용되면서 57개교에서 전교생의 3분의 2가 등교수업을 하는 밀집도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교육부의 단계적 등교수업

확대 방침에 따라 도내 직업계고(특성화고 6개교, 일반고 특성화고 3개교)는 지난 21일부터 전체 학생 등교수업이 실시되고 있다.

한편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원격수업 전환 학교가 추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23일 오전 9시 기준 대기고 1개교만 기존 조치(학급별 원격수업 24일까지)가 이뤄지고 있다.

학교 확진자는 지난 14일 이후 1명만 추가 발생해 현재 치료중이며, 자가격리 및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중지된 학생수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6월 들어 대부분 1일 500~600명선이었던 등교중지 학생수는 22일(오후 5시 기준) 242명으로, 지난 18일 512명에 비해 절반 가량 줄었다. 오은지기자

# 출생아 역대 최저기록 세우나

### 올 4월기준 1393명... 최저기록 쓴 작년보다도 4.9%↓ 혼인은 20.9% 줄어... 5월까지 인구는 1659명 순유입

제주지역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4월 기준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4.9%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5월까지 인구는 1659명 순유입

출생아 수는 3987명으로 역대 처음으로 4000명을 밑돌았다. 2017년 5037명, 2018년 4781명, 2019년 4500명에 이어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올들어 혼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4월까지 869건으로 전년 동기(1099건) 대비 20.9% 줄었다. 연간 혼인 건수가 2019년 3358건에서 2020년 2981건으로 감소하며 역대 최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5월까지 감소폭이 더 확대되는 상황이다.

한편 5월까지 제주 순이동(전입-전출) 인구는 165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317명이 순유출됐던 데서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이같은 출생아 수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도 역대 최저기록을 다시 쓸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난해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국제자유도시 계획에서 제주 제2공항 관련 빼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23일 성명을 내고 “제2공항 관련 계획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용역비만 12억여원을 쏟아 부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엉망진창”이라며 “1·2차 계획으로 야기된 난개발에 대한 성찰은 없이 신자유주의 토건 관공개발의 끝판왕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제2공항과 연계한 스마트혁신도시 조성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장기간 심도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2공항 반대를 결정한 도민의 뜻을 짓밟는 작태”라고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공항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관제와 운영시스템의 첨단 현대화 등 현 제주공항 개선이던 충분하다”며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에서 제2공항과 연계된 사업계획을 당장 삭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 드림타워 카지노 2억원대 잭팟

### 국내 거주 40대 중국인 슬롯머신 게임 황제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외곽 카지노에서 오픈 12일 만에 2억원 상당의 그랜드 잭팟이 나왔다.

23일 롯데관광개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드림타워 카지노에서 슬롯머신 게임을 하던 40대 국내 거주 중국인이 2억400만원의 그랜드 잭팟에 당첨됐다.

이번 잭팟은 지난 11일 드림타워 카지노가 오픈한 지 불과 12일 만에 나온 것으로, 16개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중 단일 잭팟 기준으로는 최대 금액이다.

드림타워 카지노는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있는 최신 잭팟시리즈인 ‘듀오 푸 두오 차이’ 머신을 도입하면서 국내 최대 수준인 2억원 이상의 잭팟이 나오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 아동학대 예방 전담 공무원 생긴다

### 제주시, 올 하반기 6명 임명 “민간수행업무 공공으로 전환”

올 하반기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임명되고, 그동안 민간이 수행하던 관련 조사를 행정과 경찰이 직접 수행하는 등 아동학대 조사 공영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시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

가 각 지자체로 이관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관련 하반기 인사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6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을 배치 관련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담공무원이 임명되면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로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 조사 업무는 행정과 경찰이 직접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학대조사

와 사례관리를 맡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 사례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공공분야에서 아동학대 관련 조사를 책임지는 아동보호체계로 개편하는데 따른 역할 분담이다. 아동학대 공공화 추진은 일선 현장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아동학대 여부를 정확히 판단, 아동들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운영된다.

한편 시는 23일 제1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사·변호사·의사·아동기관·단체 등 위원 15명을 위촉했다. 이윤형기자

## 금지구역 조업 어선 적발

23일 0시1분쯤 제주도 제주항 북서쪽 약 100m 해상 수상구역 내에서 위험하게 조업 중인 어선이 있다는 신고가 제주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제주해경서는 조업 중인 제주선적 A(5.82t·승선원 2명)호를 확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무역항 수상구역 내에서 조업이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적발 당시 A호는 한치 6마리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은범기자

# “언제든지 가시면 됩니다”

## 여행의 고장 제주

후원 제주광역시 제주관광협회

**1박2일 자유여행+렌트카 / 특급 비즈니스 호텔 2인1실**

**₩149,000~ (4인 기준)**  
**₩159,000~ (3인 기준)**  
**₩169,000~ (2인 기준)**

※ 단체는 별도문의

무등산

**1일** 제주공항출발 → 제주공항도착 → 공항에서 렌트카 인수 후 출발 → 전일빌딩 245 → 양림동역서문희마을&팽귤마을 → 제주공원마루(국악공연관람) → 호텔체크인 후 자유시간

**2일** 호텔朝食 후 체크아웃 → 광주호호수생태원 → 기사문학(소쇄원&환벽당) → 제주공항으로 이동 → 항공수속 후 출발 → 제주공항도착

- 호텔에서 일회용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개인위생용품은 본인지참입니다.  
- 주말&연휴기간: 별도 요금적용됩니다.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TAX포함, 호텔(2인1실), 호텔朝食1회, 관광지 입장료, 렌트카(소나타급), 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 중식&석식, 룸싱글차지, 기타개인비

**(주)퍼시픽투어 T. 747-8099**

**(주)굿모닝제주투어 T. 723-3350**

**아주관광 T. 757-7771**